

그 이름 인성

교 장 김 덕 용

1. 그 이름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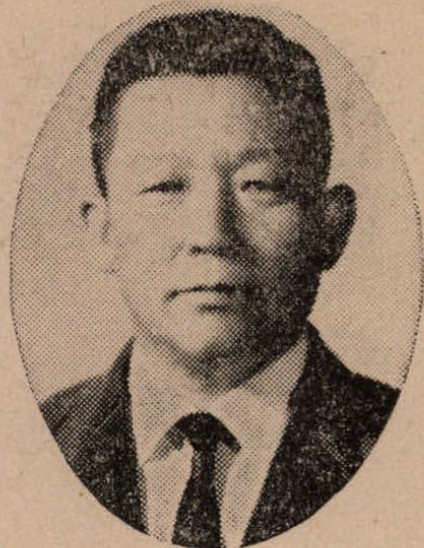
이름은 존재 이유의 총괄적 표현이며 목적의 집약이다. 이름은 존재에 선행하기도 한다. 25주년을 맞는 오늘의 인성이지만 따지고 보면 25년 훨씬 전 설립자의 가슴속에 육영이 싹 틀 때 벌써 인성은 형성되었으리라.

제일을 갈구하는 내포의 현현(顯現) 그래서 이름이 인성, 그 순간부터 인성은 기도요 회구요 가능의 거룩한 씨알이 됐다. ‘聖’의 글자 모양은 큰 귀(耳)와 작은 입(口)을 똑똑히 나타내는(壬) 거룩할 성(聖). 聖은 仁과 더불어 동양적 윤리사상의 본질을 이루고 서양의 정신적 기저인 성서에도 역시 빨리 듣고 더디 말함은 현인이요 의인이라는 귀절이 있어 바로 聖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어느쪽 관계이도 ‘인’과 ‘성’은 기본적 요소이다. 인성의 선한 씨앗이 태동하고 송학의 터전에 그것을 심어서 오차원적 이미지를 가꾸고 키웠다.

2. 인성의 성장

설립자에게 25년 전의 인성의 미래상을 물었다. 인천에서는 물론 한국에서 제일가는 학교. 바다가 앞에 시원스럽게 트인 송학의 [등마루, 교회의 뽕죽탑을 배경으로 우람하게 솟은 고층교사의 숲, 동쪽에 대학 중앙에 중학과 고교 그리고 저쪽 서편 모퉁이에 있는 것이 국민학교와 유치원, 장관실도 총리실도 제집마냥 드나드는 국가사회에 영향력있는 거목교장, 남자의 어머니가 여자인 길래 여성교육의 전당, 내외의 시찰객들이 꼭 들러 배우겠다는 인성, 그 분의 가슴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4세기전에 그려놓은 인성의 형상, 모든 가능의 씨앗은 자라서 25세의 성인이 되었다.

성장이란 가능의 외연일 뿐이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백 알의 밀이 된다. 인성의 선한 딸들이 세계로 뻗어 간다. 남들이 나를 보고 자랐다고 하면



들어다 볼 수도 없는 자기자신을 본 것처럼『자랐다고』믿어버린다. 인천사회의 인성관은 당초의 질서에서 지금의 선망으로 탈바꿈어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발전이라 기뻐한다. 지난 달 3월에 실시한 춘계 가정 방문 때의 학모의 말이었다 한다. “우리 애야 인성이니까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야 공부 않아도 들겠지요”

3학년 담임교사의 한 사람의 방문 여담을 듣고 나는 몸서리쳤다. 지난 연 3년 연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1등이란 말이 학교사회의 교사와 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주고 받아졌고 인천바닥에 물결처럼 설렁거렸다. 인성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기뻐서 말하고 들어라고 읊었다. 문제의 방담도 기쁨어린 환영의 단면이라 자위는 하고 있다.

잘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부러워하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들 한다. 영어에서 Succeed, develop, grow의 어원적 개념은(그려진 이미지에) 따라가는 것. 가능성을 노출시키는 것(숨겨져 '있든 것이) 튀어나와 여무는 것이다. 성년이 되면서 인성의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튀어나오곤 하게 됐다. 1등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1등이란 1등으로의 과정의 성과일 뿐이다. 1등은 남의 선망은 될 수 있어도 자신의 소유물은 될 수가 없다.

많은 개척자들이 겪어온 비극은 성공 그 자체에 의해서 패배를 초래케 운명지어짐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었다.

인성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속에 안이를 형유하거나 그 속에 빠져버리는 순간 성공 바로 그것에 대한 의의는 무산해 버린다. 학생들의 무지의 안타까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하나 하나 충족시켜 주면 눈동자 속에 불붙는 기쁨의 불꽃 바로 그것을 감지하며 얻어지는 스승의 기쁨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성과—1등—을 차지했다는 사실만을 즐기려는 순간 인성의 참 생명은 물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것이다. 인성은 성장의 도상에 있는 것이다. 불로의 생명, 부단의

대사(代謝) 이렇게 자라온 것처럼 또 그렇게 계속 자라자.

3. 인성의 생명력

우람한 고층건물들의 숲, 광대한 캠퍼스, 소유하고 싶은 많은 시설들도 물론 성장이며 인성교육의 필요인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식별해야 하는 것은 성장과 비대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가 여기에도 있다.

성장을 돕는 길은 비대의 예방, 표피적 사상(事象)안에 움직이는 생동력, 관찰의 대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성의 모습에도 실상과 허상이 있다. 실상을 추상(抽象)하고 허상을 사상(捨象)도 하자.

인성을 비대에서 막고 성장시키는 생명력은 25년전에 기도하는 설립자의 모습을 되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작업을 인성에서 쉬시질 않는다. 한 알의 씨알에서 시작한 분열을 수십회 거듭하는 동안 극대성장에 도달하면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 거기서 성장은 비대로 대치된다. 비대를 지고 기다리는 죽음, 개인, 단체, 국가, 누구할 것없이 비대는 죽음으로 직행한다. 인성을 죽음에서 멀리하는 길,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제일”을 먹는 것이다. 허상으로서의, 성과로서의 “제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제일이 되고자 하는 과정만을 전력을 다해서 확보하는 것, 그밖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은 없다. 이미 쌓아올린 것을 버리는 마음, 네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서 구원을 가르쳐 주시겠다든 분이 예수였다. 마음이 가난하여라. 온유하여라. 마음이 깨끗하여라. 이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성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